

신앙교육을 위하여

찬양해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11쪽)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여호수아 8:30-35

- 30 그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 31 이는 여호와와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 32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에 기록하매
- 33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와 언약케를 멘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십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 34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 35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와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 이해하기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성 버리고를 무너트린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패한 아이성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나아갔더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칼과 창으로 군사훈련

을 시켜 강한 군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개인에게 믿음의 병기를 심어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후 2차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고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백성들의 신앙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다음세대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전쟁 중에도 믿음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만나보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기

- 1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어디에 제단을 쌓았습니까?(30절)
- 2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31-32절)
- 3 여호수아가 돌 제단에 율법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34-35절)
- 4 돌 제단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4절)
- 5 여호수아처럼 나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는 수시로 신앙을 점검하고 재무장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이 자녀와 후손에게 대물림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록물이나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기도해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무기는 창과 방패가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신앙이 대물림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